



大邱直轄市부시장 姜泰泓씨

◎…大邱직할시 부시장 姜泰泓씨 —

180万 대구시민의 크나큰 살림을 도맡고 있는 姜부시장이기에 오늘도 한치의 빈틈이 없다.

날카로운 눈매에 예지(叡智)와 정렬이 넘쳐흐르는 姜부시장은 시민의 福祉 행정을 위해 현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노라고 그의 철학을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지금만큼 노력한 적은 아마 없을겁니다.

대통령각하를 위시해서 보건행정가들은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건강해야 가정도 국가도 건강해 질 것입니다.

한국 건강관리협회의 발족도 이런 취지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을 돋기 위해 발족된것이 아니겠습니까?」

◎… 姜부시장은 자기자신의 어렸을적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

「— 내가 어렸을 시절만해도 배가 아플때엔 쑥물을 마시고 복통을 가라 암쳤

옵니다. 문화의 혜택이 없었던 까닭이지요.

要는 병이 나고 안나고는 정신문제라고 봐요 수도물 먹는 사람들이 우물을
먹는 사람보다 잘 아프고 병원 출입이 잦은것은 도시생활 여건에서 물어 났다고
생각할 때 정말 정신이 모든것을 지배하는구나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잘 사는 사람들은 인삼 녹용으로 보약을 지어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건강 과잉현상입니다.

논밭에 비료를 많이 주는것과 같은 현상이지요 알맞게 먹어야 하는 것을 너
무들 지나치게 한다는 결론입니다.

◎ — 부시장님은 健協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웁고 계시고 대구시민들의 건강
복지증진에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서 좀……

—— 그렇습니다. 健協의 발족은 지금 이 시기에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서 환영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비전염성 만성질환(成人病) 환자가 급속
도로 창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고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에 임
하게 한다는 것은 건강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민들의 건강생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가정에서 스스로 가족들의 건강에 유의해
줍소사하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가정에서 신경을 쓴다면 병이 날래야 날수 없
지 않습니까?

둘째로 음식점, 접객업소등에서 고객을 스스로 자기 식구와 같이 정중히 다



뤄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식구를 돌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셋째, 환자나 의료기관이나 서로간의 입장에서 서로 한집안 식구같이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

◎… 국민은 정부시책을 믿고 생활해야 하며 특히 불신풍조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는 강부시장은 특히 健協사업은 대구시 나름대로 홍보등을 하겠지만 시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건강을 돌보아야하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므로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고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

◎… 寄協 健協직원들은 바쁜 일 중에서도 할려고 애쓰는 흔적이 엿보여 친양하고 싶다면서 대구 건협은 기필코 잘 되어 나갈것이며 예산 장비 환경 개선등의 적극지원을 약속하기도 한다.

◎… 同席한 보건과장 具滋燦씨는 83년도 대구 시정방향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시민합동 방역의 날을 운영계획하고 있으며 58만 9천명을 예방접종, 장비보강, 방역소독을 하며 의료보장제도의 기반정착을 위해 지정의료기관을 91개소에서 110개소로 확대하고 노인건강진료를 900명 새마을지도자 가족에게 27.900여명을 시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봉사로서 야간당번제와 취약지역 순회진료를 연 2회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구증가억제대책도 강력히 추진, 가족계획목표량을 총력추진할 계획입니다.」

◎… 姜부시장은 내무부 민방위국장,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현직에 취임했다.

취미로는 정구 축구 골프등 만능 운동선수. 부인 金銀珠여사와의 사이에 5남매의 다복한 家長.

